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도민 소속' 도지사 출마 선언

“전북의 선택 도민이 해야
멈추지 않는 전북 위해
끝까지 달려겠다”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9회 지방선거 무소속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소속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지사가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해야 한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도민 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인 복영숙 여사를 비롯해 장세환 전 국회의원, 김종희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많은 도민들이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해야 한다” “중요의 결정으로 전북의 미래가 좌우되는 안 된다”고 말숄었다.

이어 “저 김관영은 오늘부터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저는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이 길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며 “도민 앞에서 정당당당하게 경쟁할 기회가 보장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노와 원망에 머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전북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는 문제이자 전북의 미래와 경제 흐름을 지키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재임 기간의 성과도 적극 과 함께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기업을 찾아다녔다”며 “그 결과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포함한 27조원 규모 투자 유치와 208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지컬 AI,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재생 에너지, 새만금, 금융중심

지 등 전북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며 “이제 막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 전북 경제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씨 뿌린 사람이 물 주고 가꾸고 수확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전북을 믿고 투자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삼촌의 마음으로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다가 대부분 회수했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도민들께 상처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 문제를 이유로 도민의 선택권 전체가 지워져서는 안 된다”며 “최종 판단은 도민들이 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 공천 배제 과정과 관련해 “내란 동조 프레임으로 저를 제거하려는 흐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CCIV 문제가 나오자 12시간 만에 현직 도지사들 단 한 번의 소명 기회도 없이 제

명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명시적인 무소속 연대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도민의 품 안에서 승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만약 내란 동조 혐의로 자신이 기소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장세환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며 “김관영 지사의 출마는 민주당과 전북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북에서 배우고 일하며 세계를 꿈꾸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전북이 아니라 돌아오는 전북, 기업이 먼저 찾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뒤로 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토·일요일신문 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유성동 예비후보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교육감 선거 천호성·유성동 전격 단일화

전북교육 위기 극복 배움·성장 최우선

학생 중심 교육 ·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
학교 자율성 확대 · 미래교육 역량 강화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성동·천호성 예비후보가 정책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하며 공동 행보에 나섰다.

두 후보는 7일 발표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과 결단의 자세로 단일화를 결정했다”며 “이번 결단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전북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전북 교육계 상황과 관련해 “교육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교육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단일화 이후 함께 추진할 핵심 교육 방향으로 학생 중심 교육 실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교사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 미래교육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학생 중심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진학·진로교육, AI 기반 미래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과 인성을 함께 키워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확대에 나서고, ‘달빛도서관’과 ‘독서 300권 프로젝트’ 등 지역 기반 학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사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두 후보는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될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육공동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과 독서 중심 기초역량 교육을 병행해 학생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두 후보는 “단일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공명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0상근 기자

순창군

순창 용굴산 하늘길

○ 이용시간 : 09:00~17:00(3월부터~11월), 09:00~16:00(12월~2월) ○

자연을 품다

정상에서 서서

치유의 숲

○ 입장료

구분	입장료		순창사랑상품권 환급
	개인·단체	무료 입장객	유료 입장객
성인·학생	4,000원	만6세이하, 7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순창군민 등	2,000원

○ 문의전화 : 063-650-5660(용굴산 매표소)
○ 주 소 :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540